

고창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동'

'로컬JOB(일자리)센터' 개소... 농촌 거점형 일자리 지원 전문 컨설턴트 6명 배치... 구인·구직자 연결 등 고용서비스

고창군이 '로컬JOB(일자리)센터'의 문을 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고창읍 월곡 꿈에그린 커뮤니티센터에서 지난 1일 열린 개소식에는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로컬JOB센터'는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농촌지역의 거점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센터에는 6명의 전문 컨설턴트 인력이 배치된다.

센터는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아 일자리 소외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은 마을과 아파트단지, 농공단지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서는 취업박람회, 동행면접,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농번기 일손 제공),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지역 기업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로컬JOB센터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시장 진입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JOB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컬JOB센터는 지난달 28일 마을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박미심 군산고용노동지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읍 월곡 꿈에그린 커뮤니티센터에서 '로컬JOB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고창군 제공>

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 현안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고인들 일자리 창출단'을 출범하는 등 마을-기관단체-기업간 협력망

을 구축하고 센터와 협업해 나갈 계획을 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군산시, 제주 감귤 농가 시험재배 시작

천혜향 등 13개 품종 옮겨 심어

군산시가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감귤과 만감류 시험재배를 농가 시설하우스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3500㎡에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시작했다. <사진>

재배되는 만감류는 남진해(카라향), 미니향, 한라향(세포미), 천혜향, 레드향 등 겹질이 얇은 13개 품종으로 1~5월 수확된다.

올해 심어진 묘목들은 2년 뒤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

산된 과실은 지역 내 로컬푸드와 소비자 직거래, 현장체험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재배에 성공할 경우 고품질의 과실 생산과 함께 도시민에게 불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군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단순 농산물 생산보다 가공이나 체험을 접목할 수 있는 만감류 재배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수확체험과 가공체험과 함께 도시민 쉽터인 카페도 운영하는 등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 재경 정읍시민회 정읍시 방문 기념 촬영. 2019. 3. 31.(일)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정읍 인재양성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최근 정읍을 찾은 서울 강서구 호남향우연합회(회장 문중현) 회원들이 정읍시 예술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우회원은 벚꽃 행사장 등을 둘러보고 시청을 방문해 인재 양성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투어패스' 홍보 캐릭터·로고 선정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의 홍보를 위해 캐릭터를 '행복이'로 정하는 등 캐릭터와 로고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전북관광지를 찾는 도민과 여행객에게 친근한 홍보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캐릭터·로고·사진'을 공모·선정했다고 밝혔다.

캐릭터 부문 대상에는 민첩하고 밝은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전북색채의 전통한복을 입고 전북 곳곳의 도토리를 찾으며, 체험과 여행을 소개하는 '행복이'가 선정됐다.

캐릭터는 태권도, 한복체험, 전통주소개, 인형탈 등 다양한 피규어로 제작하고 전북 문화관광 스토리와 다양하게 융합시켜 '도토리를 찾아라', '스텝투어' 등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소개시키는 홍보도우미로 활용해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로고 부문 대상 작품은 전라북도 전통의 상징인 기와와 여행 가이드의 상징인 깃발을 사용해 전북색채의 자유로운 캘리그래피 서체로 조화롭고 편안한 여행을 표현했다.

로고는 전북투어패스 카드, SNS(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가이드북, 책자 등에 로고문양을 넣기로 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확대

7월부터 IT 도우미 읍·면동 배치 농가 판로 도와

익산시는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IT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마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마을들의 유·무형자원 인터넷 홍보와 판매 컨설팅, 전자상거래 입점 발굴 등 9개 분야에 걸쳐 250여 농가를 지원했다.

이들 농가들에게는 전자상거래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원이 투입돼 오픈마켓 판매 및 홍보대행 사업 등이 진행됐다.

시의 지원을 받은 11개 농가는 지난해 말 농산물을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1억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소농들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소농들의 오픈마켓 입점으로 어려워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권역별 IT전문가를 보조할 도우미를 일선 농촌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고령화와 과소화, 고령농, 영세농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바란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마을전자상거래 지원단(063-859-4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고령농, 영세농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주 '선미촌' 유네스코 인증 추진

문화예술마을 변신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우수성 알리기

전주의 대표적인 성매장 집결지인 '선미촌'이 유네스코 인증에 도전한다.

전주시는 집창촌에서 문화예술마을로 변신을 꾀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문화·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전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달 다음 주에 인증심사 자료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6월 말 결정된다.

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ESD 인증을 획득하면 유네스코 국제공모심사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 다양성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사례를 발굴·인증하고 널리 알리으로써 한국형 ESD 모델을 개발,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위원회가 지금까지 국내 96개 사업을 인증했으나 현재까지 국제 인증을 받은 국내 사례는 없다.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는 2016~2020년 총 74억원이 투입돼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과 도로정비,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QR code and text: '이날'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